

“민주·인권·평화·정의의 오월, 다시 피어나는 46주년”

5·18민주항쟁기념행사위원회 출범식

100여명 참여 민주묘지 참배·행진 등 ‘헌법전문 수록’ 시대적 과제 완수 다짐
공법 3단체장 불참...행사위에는 참여

“46년 전 피어난 오월의 꽃을 기억하며 나아가는 우리는 오월 위에 선 오늘의 빛입니다.”

제46주년 5·18민주항쟁기념행사위원회가 4일 오전 10시30분 북구 운정동 국립 5·18민주묘지 민주주의 문 앞에서 출범식을 갖고 올해 기념행사 시작을 알렸다.

광주·전남 시민사회 등 96개 단체로 구성된 행사위의 출범식에는 이정선 광주시교육감과 고광완 광주시 행정부시장, 위경중 상임행사위원장, 오월단체·기관 관계자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맑은 햇살이 내리쬐는 포근한 봄 날씨 속 모인 참석자들은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으로 출범식을 시작했다. 결연한 표정으로 노래를 부르던 이들은 노랫말의 의미를 되새기며 올해 행사의 성공 개최를 기원했다.

이어 행사위는 올해 기념행사 슬로건 ‘오월의 꽃, 오늘의 빛’에 대해 “1980년 5월 꽃처럼 스러져간 영령들의 용기가 우리에게 뿌리내렸고, 이후 내란을 겪으며 광장을 밝힌 ‘빛의 혁명’으로



4일 오전 광주 북구 운정동 국립 5·18민주묘지에서 제46주년 5·18 민주항쟁기념행사위원회가 출범식을 갖고 뒤 참배를 위해 이동하고 있다.

/조영권 기자

피어났다”며 의미를 재차 강조했다.

올해 출범선언문 낭독은 류봉식 공동행사위원장, 김현 광주시 청소년의회 의장, 조민혁 조선대학교 총동창회장이 함께했다.

여기에는 ▲12·3 비상계엄으로 촉발된 내란 극복 ▲오월 정신 후대 계승 ▲오월 정신 헌법

전문 수록 ▲민주주의와 인권 존중 실현 등 시대적 과제를 시민의 힘으로 완수하겠다는 의지가 담겼다.

선언문 낭독 후 참석자들은 민주주의 문을 지나 추모탑으로 이동했고 분향과 한화로 오월 영령을 기렸다.

망월동 2묘역과 민족민주열사묘역에서도 분향과 한화를 이어간 참가자들은 마지막 참배 후 ‘광주출정가’를 부르는 것으로 출범식을 마무리했다.

이날 행사에 참여한 살레시오여자고등학교 3학년 김나영(18)양은 “광주 학생으로서 오월 민주정신을 다시 한 번 되새긴 시간이었다”며 “앞

으로도 5·18이 올바르게 기억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특히 올해가 반드시 헌법 전문에 오월 정신이 수록되는 원년이 되도록 물심양면으로 돕겠다는 의지 표명도 이어졌다.

고광완 행정부시장은 “오는 46주년 기념행사가 개헌 추진을 위한 국민 참여의 기폭제가 되도록 정성껏 준비하겠다”며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에 광주가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이정선 광주시교육감도 “우리 모두가 염원하는 5·18을 헌법 전문에 수록해 다시는 예곡·편협이 반복되지 않도록 교육청도 힘을 보태겠다”고 전했다.

위경중 상임행사위원장은 “올해 민주와 인권, 평화와 정의의 상징인 오월이 다시 피어나고 있음을 확인하고자 한다”며 “5·18의 정신이 공간과 세대를 뛰어넘어 민주주의의 가치를 실현하는 실천적 가치로 자리 잡아 50년, 100년 넘게 이어지도록 하겠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오월 공법 3단체(5·18민주화운동 부상·공로자회, 5·18민주유공자유족회)의 장들은 개인사를 이유로 올해도 출범식에 참석하지 않았다.

수년 전부터 오월 공법 3단체는 상임행사위원장 선출과 내부 갈등 등을 이유로 행사위와 거리를 뒀다. 다만 이날 출범식에 앞서 열린 참가단체 대표자 회의에는 공법 3단체 관계자들이 참여했던 만큼 올해 행사를 계기로 관계가 회복될 수 있겠다는 기대감이 모인다. /이연상 기자

“고흥 양식장서 계절노동자 착취...수사해야”

전남이주노동자단체 등 기자회견

“월 209만원 계약...첫 급여 23만원”

사용자·불법 중개업자 등 6명 고소

고흥 한 굴 양식장에서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임금 착취와 강제노동 등이 이뤄졌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광주전남이주노동자인권네트워크 등 단체는 4일 고흥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 공식 사업인 어업 계절노동자 제도를 통해 입국한 필리핀 여성 노동자가 심각한 노동 착취를 겪었다”며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사진>

단체에 따르면 필리핀 국적 A(20대·여)씨는 지난해 11월 계절노동자(E-8) 비자로 입국했다.

근로계약서에는 월 209만원을 지급하기로 돼 있지만 첫달 급여는 23만5천717원에 불과했다.



이는 A씨의 임금이 시급제가 아닌 ‘굴 무게’ 기준으로 산정됐기 때문이다. 급여는 계약서와 달리 굴 1kg당 3천원을 지급하는 방식이었으며 작업이 숙달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임금이 크게 줄었다.

또 계약된 굴 작업 외에도 휴일에 녹동 지역 유자 농장으로 보내져 일을 했고, 작업량을 채우지 못할 경우 “필리핀으로 돌려보내겠다”는 협박을 받았다.

단체는 숙소 환경과 노동 관리 방식에도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손상용 전남이주노동자인권네트워크 운영위원장은 “고흥군과 법무부에 신고된 숙소와 달리 15명의 여성을 한 주택에 거주하게 하면서 1인당 31만원씩 월 총 450만원의 숙박비를 갈취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숙소 내부 CCTV 설치와 외출 제한 등 감금에 가까운 감시가 이뤄졌다”고 말했다. 이어 “이 과정에서 직업안정법상 권한이 없는 불법 브로커들이 노동자의 이동과 노동력을 통제했다”고 덧붙였다.

A씨와 지원 단체는 지난달 25일 사용자 2명과 불법 소개·중개업자 4명을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용노동부 여수지청에 고소했다.

같은 날 단체의 도움으로 A씨는 사업장에서 벗어난 것으로 전해졌다.

단체는 “계절노동자 제도를 악용한 노동 착취 의혹이 제기된 만큼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며 “관계 기관은 관리·감독 실태를 전면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찬용 기자

‘쿠광 수사 외압’ 기소 엄희준 검사, 공판 업무 배제

광주고검, 사무분장...‘통상 직무수행’

상설특검 오늘 종료...감찰 재개될 듯

‘쿠광 퇴직금 미지급 사건’ 불기소 외압 의혹으로 재판대에 서게 된 엄희준 광주고검 검사도 공판 업무에서 배제됐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고검은 최근 소속 검사들의 사무를 분장했다. 이번 분장 전 엄 검사는 광주고검 형사1부와 형사2부에서 진행되던 재판 대부분의 공소 유지 업무를 수행했다.

그러나 이제 공판 검사는 다른 이가 맡으며 엄 검사는 그 외 업무를 한다는 게 광주고검의 설명이다.

광주고검 관계자는 “엄 검사에 대한 별도 인사 명령은 받은 바 없다”며 “고검에서 할 수 있는 통상적인 업무 처리를 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이번 사무 분장이 어떤 이유로 이뤄지게 됐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히 밝히지 않았다. 앞서 상설특검은 지난달 27일 엄 검사를 직권

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해당 수사는 지난해 10월 문지석 전 인천지검 부천지청 부장검사가 당시 부천지청장이었던 엄 검사 등 지휘부에서 ‘쿠광 퇴직금 미지급 사건’을 불기소 처분하라는 압력을 행사했다고 주장하면서 시작됐다.

이 같은 주장의 사실관계를 따져보기 위해 같은 해 12월6일 출범한 상설특검은 5일로 활동을 종료할 예정이다.

이후 대검찰청은 상설특검 출범으로 사실상 중단 상태였던 문 검사와 엄 검사에 대한 감찰을 재개할 전망이다. 감찰을 통해 징계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후속 조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 관계자는 “직무 배제 등 신분상의 조치는 현 상황에서 이뤄질 단계가 아니다”며 “상설특검 종료 후 기록 검토 등을 통해 필요한 절차가 이뤄질 것 같다”고 전했다.

한편 문 전 부장검사의 주장에 대해 줄곧 반박해 온 엄 검사는 기소 당시에도 강하게 반박하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안재영 기자

60플라워
Flower

축하화환 3단 근조화환 3단

전국전지역6만배송 (기타낙후지역 배송비 추가요금발생)
Tel. 010-9984-0151 농협 박배성 302-0316-649511

철거 전문가
광주·전남 전지역 가능

- ✓ 철거 경력 20년!
- ✓ 광주·전남 전 지역 출장 가능
- ✓ 상가, 주택, 간판, 내부 철거 등
- ✓ 당일 견적 OK / 소규모 철거도 가능
- ✓ 안전·정리+깔끔함까지 책임집니다.

현주 제로레벨 상담전화 010.9842.5570